



선배 MK들이 후배 MK들을 멘토링하고 돌보는 mKainos가 올해도 MK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모금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추수감사절에 한 자리에 모인 멤버들.

“MKs Commit to mKommit”

mKommit, 올해도 선교사 자녀 장학금 모금

선배 MK들이 후배들을 돕기 위해 올해도 발벗고 나선다. 미주의 MK(Missionary Kid)들, 즉 선교사 자녀들이 창립한 mKainos는 MK들의 장학금을 모금하는 프로젝트 mKommit을 올해도 진행 중이다.

부모가 선교사로 헌신했기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교지로 떠나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했던 MK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특별한 달란트와 영성을 갖게 된 대신,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에 대한 상처, 문화에 대한 단절감으로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사는 존재이기도 하다.

선교지 현지에서는 적절한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MK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들은 8년 전, mKainos를 창립하고 정기적 모임과 매년 연합수련회를 통해 MK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MK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선배 MK가 후배 MK를 멘토링 하며 돌보는 것이다.

지난 해부터 이들은 연말을 즈음

해 mKommit 프로젝트를 벌여 왔다. 지난 해에는 1만2215달러를 공개 모금했고 한 기부자가 매칭펀드 식으로 후원금을 보태어 총 2만 달러를 모금해 15명의 MK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당시 장학금을 받은 이보배 양은 “이 장학금을 통해서 저는 의료선교라는 사명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mKommit 측은 “우리는 후배 MK들이 하나님에 주신 복음의 사명과 각자의 문화, 교육, 사회적 전문성을 가지고 전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부모들의 선교적 사명을 이어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들로 자라길 소원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신상원 전도사(디사이플교회)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온 우리들이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누어야 할 때”라고 말한다. 신 전도사처럼 mKommit의 선배 MK들은 현재 목회, 교육, 의료, 전문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

지만 후배들을 돕고자 나선 것이다. 또 이 모금에는 MK들과 함께 GP선교회가 모금과 세금 공제 등을 돕고 있기도 하다.

후원에 동참하려면, 우편과 온라인 등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P.O. Box 75459 Los Angeles, CA90075로 수표를 써서 mKommit 앞으로 보내면 된다. Payable to는 Global Partners로, 메모란에는 MK Scholarship이라 기재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www.youcaring.com/mkommit2014 사이트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올해는 1만2천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2월 3일 현재 약 3,280달러가 모금된 상황이다. mKommit은 앞으로 12월 22일까지 모금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2월에도 mKainos는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수련회를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개최하며 100여 명의 MK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상원 전도사, 714-388-2422 김준형 기자

예수님 없는 예수님 생일

응답자 8%만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팻머스문화선교회(대표 선량욱)가 일반인 199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11월 28일 발표했다. 팻머스는 2014년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을 꼽은 답변이 33%,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크리스마스 파티’ 21%, ‘예수님’ 17%, ‘콘서트 및 다양한 공연’ 7%, ‘기타’ 1%였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가 18%,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

는 날”이 24%, “예수님의 생일”이 8%였고,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다.

“크리스마스에 주로 하는 일”로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는다”가 15%,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가 5%, “연인과 함께 데이트를 한다”가 22%였다.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와 “공연을 본다”가 각각 29%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노래는 ‘싱글벨’, ‘루돌프 사슴 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White Christmas’, ‘크리스마스엔 축복’을 등으로 다양했다.

김진영 기자

고영준 목사 시집 ‘당부’ 출판



고영준 목사의 시집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사진 앞줄 우측 세번째가 고영준 목사.

평론가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영준 목사의 두 번째 시집 ‘당부’의 출판과 첫 번째 시집 ‘고향이 있었다’의 2쇄 출판 기념회가 지난 달 30일 오렌지카운티 갈보리장로교회에서 열렸다.

민준기 목사(시인, 미주장신목양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1부 기념예배는 김영교 시인의 기도, 방동섭 목사(시인, 기독교문화연구원)의 설교, 박종희 목사(코이노니아선교회대표)의 특송, 라무열 목사(갈보리장로교회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방 목사는 시편1:1-6로 “행복한 사람이란” 제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행복의 핵심”이라며 고 목사의 시집이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축복했다.

제2부 출판기념회에서는 흥승주

교수(시인, 극작가)의 서평, 김신웅 장로(시인)의 격려사, 윤건창 목사의 축사, 카라 리의 특송, 그리고 시인 김영교·신경호·김주경·정정숙·이영인 등의 시 낭송, 저자의 답사 순으로 진행됐다.

흥승주 교수는 서평을 통해 “두 권의 시집을 통해 저자의 인생관, 종교관, 사회관을 엿볼 수 있다. 신앙뿐만 아니라 문학으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함이 묻어난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여전히 부족함 뿐임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격려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답사를 대신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는 폭우가 내리는 중에도 많은 동료 문학인 및 지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 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You Can Do! in LA

온라인만으로 대한민국 4년제 정규학위 취득!
온라인대학교

미국에서 한국어로 4년제 대학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로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대학교를 만나면 당신의 내일이 더 빛날 것입니다.

- 시간간 제약이 없는 편리한 온라인 강의
- 한국어로 4년제 정규학위 취득 가능
-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기회 확보

미국 LA 교육설명회

1차 교육설명회

- 일시 : 12/6 (토) 14 : 00
- 장소 : LA월드미션대학 채플룸
(World Mission University, Chapel Room)
- LA월드미션대학 주소
: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 LA월드미션대학 홈페이지
: http://www.wmu.edu

2차 교육설명회

- 일시 : 12/8 (월) 14:00
- 장소 : LA한길교회 (The Way Church)
- LA한길교회 주소
: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LA한길교회 홈페이지
: http://churchtheway.com

※ 연락처 : [TEL. : (818) 251-0905]
[E-Mail : kcou2012@naver.com]





주님세운교회에서 특별한 추수감사주일 행사들이 열렸다. 사진은 토랜스 유스 심포니의 공연 장면.

주님세운교회에서 특별한 추수감사주일 행사 열려

지역사회 인사 초청해 만찬, 특별 음악 공연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는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한 손님들과 함께 했다.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을 돕고 있는 데이빗 하들리 주 하원의원 부부와 딘 로이티 로미타-토랜스 지역 로타리클럽 회장 부부를 교회로 초대해 함께 추수감사절 만찬을 나눈 것이다.

이어 오후 1시부터는 토랜스 유스 심포니와 드림 유스 콰이어의 특별 공연이 교회 본당에서 이어졌다. 이 공연에는 Astor Piazzolla의 Libertango(리베르탱고), 대부3의 삼

입곡으로 유명한 Pietro Mascagni: Cavalleria rusticana - Intermezzo 등이 연주됐다.

특별히 청소년 성악 콩쿨에서 1등을 하여 내년 카네기 홀에서의 연주를 앞두고 있는 15세 천재 소프라노 Golda Berkman이 특별 연주자로 출연해 How Great Thou Art(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불렀고, 한국 가곡인 이수인의 '고향의 노래'를 한국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김나래 기자

· 특별기고 ·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구세군 자선냄비

팔랑 팔랑!
매년 연말이 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 사람들은 “아, 벌써 연말이 되었구나”라고 말하는가 하면 “올해는 이웃사랑을 조금은 실천해야겠구나”라고 말하는 등 구세군 자선냄비는 이웃사랑 실천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한인사회에서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그나마 몇 개 안되는 한인 마켓들 중 한 마켓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 속에 물건도 없고 손님도 발길이 끊어져 자선냄비 설치가 힘이 든다.

다른 마켓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한남체인과 김스전기 앞에서의 자선냄비만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몇 분들은 “왜 사람들이 많은 커다란 물에 자선냄비를 설치하지 않느냐?”고 물어온다.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운영진들의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점점 사람들의 인심이 야박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 주 철 사관
구세군나성교회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참 우리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소수를 위한 배려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스가 정차하고 그들을 태우기 위해서 직접 운전수가 내려서 그들을 태우고 안전벨트까지 채워주는 모습은 감동을 준다. 버스 승객들 중 어느 누구도 시간이 없는데 지체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공장소나 마켓 등지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내가 빨리 가기 위해서 장애인들은 거리로 나오면 안 되고 내가 볼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서 어려운 사람들은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섬김을 통해서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진정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진정한 성숙함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불편해도 배려하는 모습일 것이다.

사람들이 편하게 쇼핑하게 하기 위하여,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선냄비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 마켓이 늘어가고 있다. 정말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여전히 밤이면 흑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오래 전 LA의 4.29 폭동을 기억하시며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유가 어떻게 당시 언론들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뉴스로 내보냈다.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이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조금은 불편해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

“오늘 한 명의 인재 위해 십자”

미주 대한신학대 후원의 밤 열려

미주 대한신학대학 후원의 밤이 11월 30일 한인타운 내 한 호텔에서 열렸다. 교직원과 동문, 미주 대 신총회 교단 관계자 등 약3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학교 측은 참석자들의 기도와 후원을 당부했다.

이 행사는 박병구 교목실장의 사회로 시작돼 유응렬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최아람 스포츠분과 부학장이 갈라디아서 6장 6-11절을 봉독한 후, 박효우 부총장이 “십은대로 거두는 법칙”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부총장은 “오늘 우리는 후진양성을 위해 십자. 한 사람을 십으

면 한 시대, 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신학대학이 연방정부로부터 1-20 발급 자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현재 상당재정이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이 학교는 후원자들로부터 약 4,100달러의 기금을 모금한 상태다.

이어 미주 대신총회 남가주노회장 김영배 목사가 축사했다.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전광훈 총회장과 최복규 경증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황수원 대표회장, 대신총회와 통합이 추진되고 있



미주 대한신학대학이 후원의 밤을 열고 참석자들의 후원과 기도를 당부했다.

는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 등은 서면으로 축하를 보내 왔다.

이 행사에서는 김숙영 교수와 남가주실로암교회가 중창단이 찬양을 했고 박종대 목사가 색소폰을 연주해 은혜를 선사했다.

끝으로 이태환 남가주원로목사

회 직전회장이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후부터는 식사와 친교의 시간이 이어졌다. 김영구 토랜스분교 학장의 사회로 내빈 소개가 이뤄졌고 경찰산교회의 서준 목사가 기도했다. 또 재단이사장 류당열 목사가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 학교는 권오달 총장 취임 이후, 시애틀분교를 개교했으며 캄보디아신학대학과 MOU를 맺었다. 라크라센타 시의원인 서영석 박사를 부총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출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제24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나날이 성장 발전하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저희 교협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교회협의회가 더 열심히 교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제24대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여러분 모두를 정중히 초청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취임회장
김기동 목사



이임회장
민경엽 목사

- 회 장 : 김기동 목사
- 부회장 : 수석/민승기 목사, 기획/송규식 목사, 목회/이 서 목사, 신학/남성수 목사, 대외/윤덕곤 목사, 영성/이호우 목사, 교육/심상은 목사, 평신도/윤우경 집사
- 총 무 : 신현철 목사
- 서 기 : 박재만 목사

- 일시 2014년 12월 7일 (주일) 오후 5시
- 장소 나침반교회 (담임 민경엽 목사)
-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 562) 691-0691
- 문의 신현철 목사 ☎ 714) 321-1891 / 박재만 목사 ☎ 213) 255-0296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있는 각 교회들의 협업체로서, 회원들의 공동 이익과 발전을 위해 힘쓰며,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영성집회, 전도활동, 세미나, 사모 Blessing night, 장학활동,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며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기도하는 목사회”

OC목사회장에 박재필 목사 취임



OC목사회 회장 이취임식이 엘림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오렌지카운티목사회 회장에 박재필 목사(남가주지구총교회)가 취임했다. 11월 30일 엘림선교교회에서 열린 이취임감사예배에서 직전회장인 김영찬 목사가 이임하고 박 목사가 신임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예배에는 OC교협 신임회장

김기동 목사를 비롯해 교계 관계자들과 OC목사회의 임원들,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신임회장의 1년 사역을 축복했다.

신중은 목사는 설교에서 “제37대 목사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확장하는 단체가 되라. 다른 단체와 달리 목사회는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C목사회는 김영찬 직전회장 때부터 매달 세 번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은혜한인교회 세계기도센터에서 연합기도회를 열고 있다. 새 회기를 맞이한 OC목사회는 이런 기도의 흐름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12월 17일 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문소현 기자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진행했던 한인본부 측 실행위원들이 최근 주님세운교회에서 자체 평가를 마쳤다.

다민족연합기도회

“미국 다시 살리는 기도의 불길”

지난 11월 11일 일바인에서 열렸던 다민족연합기도회를 진행했던 한인본부 측 실행위원들이 최근 주님세운교회에서 자체 평가를 했다. 실행위원들은 이 기도회가 무너져 가는 미국을 다시 살리는 기도의 불길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전기가 되는 축제였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회는 다민족기도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강순영 목사(JAMA 대표)의 사회로 총무 김기동 목사(총만교회)가 기도했으며 대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설교했다. 이 행사를 마친 후에는 기도인도자 대표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나래 기자

OC평신도연합회 윤우경 회장 취임

감사한인교회에서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 열려



OC평신도연합회의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식이 거행됐다. ©연합회 미디어부 제공

오렌지카운티기독교평신도연합회의 윤우경 회장과 신복수 이사장이 취임했다.

이 단체는 OC 지역을 대표하는 평신도 연합체이면서, 매년 연합전도집회·성가제 등으로 교계 연합에도 앞장서 왔다. 최근 기독교전도회 연합회에서 그 이름을 평신도연합회로 변경한 바 있다.

11월 30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예배에서는 윤 회장과 신 이사장이 취임했다. 지난 회기에는 윤 회장이 이사장, 신 이사장이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예배에는 OC한인회의 김가 등 회장, OC장로협의 김종대 회장, JAMA의 강순영 대표, 스티브 황보라팔마 시장, 중부교협의 허귀암 회

장, KCCD의 임혜빈 대표, OC교협의 김기동 회장 등 OC 교계와 사회를 대표하는 한인 인사들이 참석해 순서를 맡으며 축하했다.

설교는 감사한인교회의 담임인 김영길 목사가 “눈이 올 때 구덩이에서 사자를 죽인 사람”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문소현 기자



미주비전교회에서 24시간 중보기도회가 시작된다.

매달 1번 24시간 동안 열방 위해 중보기도

미주비전교회(이서 목사)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온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기도회를 연다. 이 기도회는 복음화에 뜻

을 품은 모든 성도들에게 개방된 행사다.

주소)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92801
전화) 714-821-9900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T.323.737.8888

Fullerton 지점: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213.453.6624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65	\$150	2개 구입시 \$370	\$320
3개 구입시 \$255	\$180	3개 구입시 \$555	\$450
4개 구입시 \$360	\$230		

홍삼순액

30포 \$120	60포 \$180	90포 \$255	120포 \$320
-----------	-----------	-----------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8:12

LIGHT

HIGHERCALLING14

2014 미주 청년학생 Conference

HIGHER CALLING CONFERENCE 2014

다음세대가 빛 되신 예수그리스도를 만나야합니다

www.gohighercalling.com

Dec. 21-24 2014 / San Diego

\$195 by Dec 8; \$245 by Dec 21

SPECIAL GUEST SPEAKERS

JIM-BOB PARK – Senior Pastor, OMC
EUGENE CHO – Lead Pastor, Quest Church
GREG STIER – Dare 2 Share Ministries
DONG WHAN KIM – National Director, KCCC and MANY MORE!

DECEMBER 21-24, 2014

TOWN AND COUNTRY RESORT & CONVENTION CENTER
500 Hotel Circle North, San Diego, CA 92108

Phil Wickham Concert

HIGHER CALLING MAIN OFFICE : 1636 W. 8th Street #100, Los Angeles, CA 90017
Phone : 213.389.5222 | Email : LAoffice@highercalling.org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초기 한국교회는 왜 급성장 했을까?

외국 목사나 교인들로부터 흔히 받는 질문이 하나 있다.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느냐는 질문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늦게 시작된 한국 선교는 괄목한만한 성과를 냈다. 따라서 한국 초기 교회 성장에 대해 선교사 파송 교회가 “근대 선교의 또 다른 기적”이라 말한다.

중국은 1807년 영국 회중교회 목사 로버트 모리슨(R. Morrison)이 선교를 시작했다. 그가 선교를 시작한지 27년만인 1834년 세상을 떠났는데, 그 때까지 불과 10명에게 세례를 주었을 따름이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중국에는 단 세명의 신자가 있었을 뿐이었다. 태국은 1831년 미국 회중교회가 18년 동안이나 선교했으나 아무 실적 없이 철수했다. 미국 장로교회가 1840년부터 선교를 시작하였으나 역시 18년 동안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지 못했다. 이듬해인 1858년에, 그러니까 회중교회 선교로부터 실로 27년 만에 나이 चु네(Nai Chune)라는 기독교학교 교사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 후에 한 사람이 더 세례를 받음으로 태국 선교 30년에 단 두 명이 세례를 받은 기막힌 역사를 기록했다.

한편, 몽골은 1817년 런던 선교회가 보낸 슈미트(T. Schmidt)가 10년 선교에 단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같은 해 선교를 시작한 스톨리브라스(E. Stallybrass)와 스완(W. Swan)이 25년간 선교했으나 아무 실적이 없어 1841년에 떠났다. 1870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길머(J. Gilmer)가 22년간 선교했으나 역시 헛일만 하고 떠났다. 결국 이들이 선교한 47년 동안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교 역사를 남겼다.

그런데 같은 아시아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는 선교 30년이 채 못 돼 장로회 총회가 창립되고 총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경이적 선교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어느 나라에서는 수십 년을 선교해도 얻지 못하는 세례교인을, 선교사가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들에게 예배당이 없어 냇가로 가서 세례를 베풀 정도로 한국 선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우리는 초기 한국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한 원인을 찾았으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 분석을 한다.

첫째, 무엇보다 기독교가 한국에 선교될 무렵, 한국에는 강력한 국교(國敎)가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에 “미신 외에는 종교가 없다”라는 외국인들과 선교사들의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니고 무교, 불교, 유교 등의 잡다한 종교들이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하나도 민족종교로 정착되지 못했다.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종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 인도, 중국, 태국, 몽골 등 아시아 여러 나라 선교가 그토록 어려웠던 것은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종교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강력한 민족 종교가 없었으므로 타 종교가 들어와도 특별히 저항하는 세력이 없었다. 또한 한국인들은 여러 종교를 복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심성이 형성되어 있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었다. 가톨릭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크게 박해를 받은 이유는 종교 자체보다도, 권력 세력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된 측면이 강했다. 한국에 강력한 민족종교가 없었기에 한국 선교가 용이했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복음화를 가속화 하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둘째, 기독교가 들어왔을 당시 한국은 국내, 외적으로 무척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국가적으로는 조선조 500년 역사가 쇠락의 길로 내닫고 있었다. 한발과 기근 등 자연재해가 연속되면서 흉년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갔다. 고달픈 삶에 지친 하층민들이 유민(流民)과 낭인(浪人)이 되어 각지로 떠돌며 도둑질과 약탈을 서슴지 않은 상황이 전개됐다. 국외적으로는 여러 제국주의가 세계 각지에 새로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던 때였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이라는 약소국에 군침을 흘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침략의 구실을 찾던 때였다.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는 외국 간 전쟁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전쟁터가 되어, 우리 땅과 민족이 회복하기 어려운 참화를 겪어야만 했다. 이 모든 고통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힘 싸움에 희생양이 된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때 한국은 새로운 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러·일전쟁 후 한국인들이 교회로 몰려간 이유에 대해 한 선교사는 다음과 묘사했다. “[러·일전쟁을 겪은] 마음의 불안정 때문에 한국인들은 여기저기 무엇을 찾아 지지와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물론 복음이 채워주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주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며, 복음에 대해서 듣고, 묻고 싶어 한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것에 의지하는 사대(事大) 성향이 강해 그 동안 중국에 기대고 살아왔다. 그러나 1895년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까지 이기는 것을 보았다. 한국은 일본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서양 기술과 산업을 받아들여 근대화된 연유라는 점을 간파했다. 따라서 선진된 문화와 힘을 가진 선교사들을 통해 이것을 받아들이려는 의도 속에 신앙을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한 일본인이 “조선인들은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 구미인(歐美人)이라면 무엇이든지 훌륭하게 생각한다”고 한 말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상황에 따라 감자 편에 서고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실 모두를 부인할 수만은 없다. 일반인들 중에는 선교사의 그늘에서 고생이나, 관리들의 괴롭힘도 면하고, 재판의 불공정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사람은 아무 문제없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특별히 외부의 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이나, 가정, 국가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도울 힘을 찾는 법이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 성장의 요인 중 이 신앙의 전래 시기가 극히 어려웠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는 요인 중 하나이다.

(계속)



나성소망교회가 지역사회 섬김의 일환으로 무료 B형 간염 검사를 실시했다.

나성소망교회

무료 간염검사로 지역사회 섬겨

남장금 요리경연대회 재미도 한껏

나성소망교회는 11월 23일 주수감사주일에 남장금 요리대회와 무료 B형 간염검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나성소망교회의 섬김을 경험했다.

남장금은 남자 성도들의 요리 경연 축제인데 해마다 펼쳐지고 있으며 무료 B형 간염검사는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 센터 내 아

태 간 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시됐다.

이날 김재율 담임목사는 주일 설교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홀로 독립적인 자녀로 강하게 키우기보다 이제에는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살려야만 교회와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래 기자

박재호 목사 대통령봉사상 수상

“더욱 진취적 시민 정신으로” 소감



브라질 새소망교회 박재호 목사가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했다.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이자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인 박재호 목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회봉사 건설생활 모범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박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뱃지를 전달받은 후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

하다”고 말하고 “더욱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시민 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교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으로서 성결교회의 세계화와 복음 선교에 노력하였으며 미주웨슬리언연합회 장으로도 섬겼다. 세계복음화대회, 세계목회자세미나에서 수차례 주강사로 활동하면서 미주 한인 교회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미국개혁주의신학교 등에서 교회 행정학 교수로 활동했고 현재는 미주찬송가공회 회장,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특히 성결월드미션 총재로서 사회봉사 단체를 후원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해 오기도 했다. 저서로는 조직신학, 교회행정, 교회음악, 개척교회 목회에 관한 30여 권이 있다.



건강보험 전문회사 DK 건강보험(구 하나건강보험)이

65세 이상의 **메디케어 건강보험**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강 보험 플랜을 취급합니다)



213-500-4563
ID:DKHEALTH

오바마 건강보험 (Covered CA)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이전트로 부터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로 최고의 고객만족을 제공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현재의 소득이 10% 이상 증가 하거나 10% 이하 보험료가 줄었습니까? 가족구성원의 수가 변화하였습니까? 현재의 건강보험을 2015년에도 유지 하고 싶습니까? 저희 DK 건강보험에 연락 주세요, 혹은 카카오계정을 이용 하시면 더욱 편리 합니다.

1. 손님의 요구에 따라 각 카운티와 계약된 모든 건강보험을 보험료와 보험혜택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정부의 건강 보험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칼 그리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과의 소득에 따른 연관성이 있습니다. 플랜 가입후 메디칼에 대한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각 헬스 플랜에 따른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처방약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의료 외 혜택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항상 여러분곁에 있습니다. 카카오 계정 DKHEALTH 나 213-500-4563 을 기억 하십시오.)

메디칼 메디케어 특별 필요 플랜도 도와드립니다

1.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을 분석하고 메디케어 수혜자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처방약 비용 분석, 처방약 보장 분석, 치과 혜택 분석, 안경데 렌즈, 보청기, 헬스클럽등의 배니핏이 최대한 보장되는 플랜을 비교 분석하여 드립니다.)
2. 당뇨질환이나 심장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메디케어 건강 보험
3. 신장투석을 하고 있습니까? 신장투석을 하거나 신장이식을 하신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등을 분석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건강보험

메디칼과 메디케어의 통합에 따른 여러가지 건강 보험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맞는 건강 보험을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DK 건강보험은 메디케어의 신청 메디칼의 신청 엑스트라 헬스 플랜의 신청 그리고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의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톡 서비스를(카카오 계정 DKHEALTH 혹은 213-500-4563을 저장하세요) 제공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카오 톡을 통해 건강보험의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신분이나 세금을 내신 기록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 질 수 있지만 최대한 저렴하며 보험가입자의 혜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세부터 65세 까지의 모든 건강 보험을 도와드립니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도 도와드립니다.

DK HEALTH INSURANCE, INC.
(구, 하나건강보험)



DKHIS.Inc
LIC #: 0146629

문의 전화

1-855-386-3088, 1-213-500-4563

LA 본사 주소: 520 S VIRGIL AVE #204 *샌 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다이아몬드 바에도 오피스가 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과 종말의 징조들

마태복음 24:1-14



1. 성경적 종말론(聖經的 終末論)이란?

종말론(Eschatology)이란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기들로 성경적 종말론이라 함은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예언(預言)들을 논(論)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드리려 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 사이에 스룹바벨 등에 의해 세워진 성전을 헤롯대왕이 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확장 증축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공사는 BC 20년에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에도 진행중이었으며 AD 63년쯤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헤롯대왕이 그토록 힘써 웅장하게 세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리우리다” 하심으로, 머지않아 다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부연하여 세상 종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사도 행전 17:24-25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萬有)를 지으신 신(神)께서는 천지(天地)의 주재(主宰)시니 손으로 지은 전(殿)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萬民)에게 생명(生命)과 호흡(呼吸)과 만물(萬物)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심을 보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건물성전(建物聖殿)에 계시지 않으시고 고전 3:16-17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심으로 구약시대엔 하나님의 임재(臨在)를 상징하는 법궤(法櫃)를 모신 건물을 성전이라 했으나, 신약시대에서 부터는 회개(悔改)하고 거듭난 사람이 그 중심(中心)에 성령(聖靈)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 하신 것입니다.

2. 종말의 징조(徵兆)들

이상과 같은 묵시(默視)적 예언(預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徵兆)가 있사오리이까 했을 때 본문 4-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迷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심을 보아 말세징조(末世徵兆) 중 첫번째가 거짓(가짜) 그리스도의 출현(出現)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을 경고(警告)하셨고 6-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시며 이런 일이(끝날의 징조들로)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닐 것이라시며 민족간(民族間)의 살상(殺傷)과 국가간(國家間)의 전쟁(戰爭)이 일어난 것이며 처처에 기근(飢饉)과 지진(地震)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끝날이 다가

옴을 알리는 종말의 징조들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가까운 예(例)로 우리나라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종식후 외세(外勢)에 의해 남북(南北)으로 분단(分斷)된 가운데 북쪽은 무신론적 유물사관(無神論的 唯物史觀)을 주장(主唱)하는 공산주의집단(共產主義集團)이 되어 성직자(聖職者)들을 죽이거나 강제노역(強制勞役)으로 혹사(酷使)시켰는가 하면 사상교육(思想教育)과 훈련(訓練)을 시킨다고 주변 사람들은 물론 부모형제(父母兄弟) 사이에도 신앙문제(信仰問題)나 사상문제를 고발(告發)하면 영웅(英雄)으로 호칭하며 천륜(天倫), 인륜(人倫)마저 파괴(破壞)시킨 상황(狀況) 속에서 9-12절에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는데 지나온 60여년의 세월 속에 이 북방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 왔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겪은 애굽과 바벨론, 앗수르와 블레셋에게 당한 환난(患難)들이 그들의 죄값으로 당한 징계(徵戒)였다면 신약시대에 네로 황제를 통하여 로마로부터 혹독(酷毒)하게 당한 핍박(逼迫)과 환난으로 순교(殉教)당한 이들의 피가 인류복음화(人類福音化)를 위한 영적 부흥(靈的復興)의 밑거름이 되게 하심이겠지요. 14절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심으로 지구촌(地球村) 어느 구석에 살든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 얻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公義)로우심을 만천하(萬天下)에 광포(廣布)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전에 있었던 미얀마를 덮친 대해일(大海溢)로 9만여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가옥이 파괴되고 생계가 막연해진 생존자(生存者)들에게 여러나라에서 도와주겠다는 구제품마저 거절하고 배척하는 그 나라 공산정권(共產政權)이 야속하다 못해 원망스럽기도 했지요. 이어서 중국 쓰촨성의 대지진(大地震)도 공개 발표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주변에서 간간히 흘러나오는 소식에 의하면 10만 이상의 사망자와 18만명 이상의 이재민(罹災民)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미국에서도 오하이오주(State of Ohio)와 주변에서 갑작스런 대홍수(大洪水)로 인하여 가옥전답(家屋田畓)이 침수(沈水)되어 농작물 패농은 물론 숙식(宿食)이 곤란하다는 뉴스(News)를 보면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하신 7절의 말세 징조를 보는것 같아 역사적 종말(歷史的 終末)을 대비(對備)해야 겠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종말론에 숨긴 비전과

그리스도의 왕국도래(王國到來)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사주(思注)를 받아 범죄함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가게 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成肉身, Incarnation) 시켜서 세상에 보내사 저가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의 법대로 대신 벌 받아 죽임 당하게 하시고 사흘만에 부활(復活)시키사 아담의 후손중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聖靈)의 계시(啓示)와 조명(照明)과 체험(體驗)과 감동(感動)으로 믿음만한 증거를 하게 하시는데 영감적 신앙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永生福樂)을 누리게 하십니다. 창세 이후 아담의 범죄후(犯罪後)부터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Christ)를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상에서 운명직전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얻게 하시는데 신구약(新舊約)을 막론하고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얻은 백성들로 그리스도의 왕국(王國)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악 세상(罪惡世上)을 심판(審判)으로 불바다가 되게 하시어서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시고 구원얻은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데살로니가전서 4:16-17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降臨)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대로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1-4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新婦)가 남편(男便)을 위하여 단장(丹粧)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帳幕)이 사람들과 함께 거(居)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哀痛)하는 것이나 곡(哭)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하신대로 지상천국(地上天國)이 될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이 세상이 역사적 종말, 성경대로 되어져가고 있는 것가지 말세 징조들이 실현된 후 베드로후서 3:10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땅덩어리)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신대로 지금의 오대양(五大洋)육대주(六大洲)가 뜨거운 불에 녹아져서 전술한 바 요한계시록 21:1절같이 처음 하늘, 땅,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 지는데 그곳이 곧 예수께서 만왕(萬王)의 왕(王)만주(萬主)의 주(主)가 되셔서 자기 희생(犧牲)과 대속(代贖)으로 말미암아 구원얻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베드로후서 3:13-14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義)의 거(居)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點)도 없고 흠(欠)도 없이 평강(平康)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전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지배(支配)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留念)합시다. 본문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하셨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 대학교
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제)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제는 일제 식민사학(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사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노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mjeongse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10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아름다운교회 성가대반주자 모집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로랜하이츠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에서 사역에 함께 하실 성가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음악전공자나 교회성가곡 반주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연습시간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부터 9시 15분까지 또 주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로 주일예배 전후로 1시간씩 연습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간단한 인터뷰와 오디션이 있습니다.

E-mail: dhpark2430@gmail.com
문의 : 213-605-6015
성가대지휘자 김도희

복음의 시대에도 율법이 계속 필요한가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는 쪽 복음이 있었습니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의 복음 서가 따로 출판되고 읽혀지고 있었 습니다. 신약과 시편만이 붙은 성경 도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중 등 성경을 가져오라 하였지만, 초등 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반에 이르 기까지 교회당에 성경을 가져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 도 성경 없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이 붙어있지 않은 신약성경만 가지고 다녀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지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 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의 완성”이, 혹은 “율법의 마침”(롬 10:4)이 되 셴으니, 우리는 이제 신약만, 특히 복음서만 열심히 읽으면 될까요? 분량도 많은 구약, 이해하기도 힘든 구약에서 이제 졸업하는 것은 어떨 까요?

대답은 “아니다”(no)입니다. “결 코 아니다”(never)라고 함이 더 옳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은혜, 죄, 속죄 제사, 구속, 회생, 하나님의 영광, 믿 음 그리고 자유라는 모든 언어는 구

약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에서 말하는 대 부분의 중요 단어의 의미들을 제대 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 신 분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 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인용하고 있음은 우리가 구약, 혹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지 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 지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님께서 구약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하 나님의 말씀인 구약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완성하셨다는 것 입니다. 모든 제사법을 자신의 몸으

로 이루셨기에 우리가 다시 율법대 로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 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 신 율법의 성취는 우리를 율법의 모 든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사도들은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 였기에 이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 에게 메우지 말자고 결정하였습니 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 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것이 사 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과 구약을 복음 의 빛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을 이 해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께 서 세우신 새 언약, 복음 언약 안에 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열매 를 맺기 위하여 율법의 정신을 생각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효용성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복음 으로 우리를 이끄는 가정교사 노릇 을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는, 율법의 의에 비교할 때, 하 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진짜와 가짜



김세환 목사
LA한인연합감리교회

한국의 연예 방송 중에 “히든 싱 어”(Hidden Singer)라는 프로그램 이 있습니다. 원래의 가수와 다섯 명의 모창자들이 밀폐된 칸막이 방 안에서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면 청 취하고 있던 백 명의 방청객들이 진 짜 가수와 모창자들을 구별해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네 번에 걸쳐 노래를 부르는데, 각 단계마다 가장 원곡의 가수 같지 않은 모창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차례대로 골라냅니다.

모창 참가자들이 진짜 가수와 구 분이 안 될 정도로 노래를 비슷하 게 잘 부릅니다. 방청객들 중에는 동료 가수들도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비슷한지 진짜와 가 짜를 구분하지 못해 헛웃음만 연발 합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원곡의 진짜 가 수가 첫 단계에서 가짜로 몰려 떨어 지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진짜 가수 의 음악적인 재능이나 카리스마를 훨씬 능가합니다. 어찌보면, 이 시

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 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간하 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진짜 명화를 그대로 모사한 가짜 그 림이 너무도 정교해서 원 작품보다 세 배나 더 비싼 가격에 팔렸다고 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긴 것입니 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유는 그만큼 진짜가 매력적이고 좋기 때문입 니다. 돈이 되고, 이득이 되고, 장사 가 되기 때문에 가짜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때는 참기

름, 휘발유, 벌꿀 같은 것들의 가짜 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급 이 늘어나고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 에 더 이상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 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폄 휘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 독교가 좋기는 좋은가 봐, 가짜가 판을 치는 것을 보니!” 세상 사람들 의 푸념입니다. 가짜 학위 소유자들 중에서 목사들이 단연 1위이고, 사 업 비리 사범의 1위가 교회 장로들 이라고 합니다. 아주 멋진 궁합입니 다. 자연히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 독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 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치들이 “가짜”라 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분을 따르 는 우리들도 마땅히 진짜이어야만 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이기는 말도 안되는 모순들이 기독교 안에서 만 큼은 이제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 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1492년 독일에서 <뉴렌베르그 연대기 Nurenberg Chronicle>라 는 책이 발간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일 년 안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내용 을 담고 있었다. 소위 극단적 종말 론에 관한 책이었다. 이 책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나서 닉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페인 리스본에 서는 항구를 떠나는 작은 범선이 있 었다. 이 배는 지구에 종말이 온다 는 당시의 절망적인 사회적 분위기 에도 불구하고 밝은 희망을 품고 대 서양의 파도와 싸우며 서쪽으로 서 쪽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 해 나갔다. 파도를 가르는 뱃머리에 는 한 사나이가 서서 수평선을 지켜

보고 있었다. 곧 종말이 온다고 모 두가 절망과 공포에 쌓여 있을 그 때에, 또 바다 끝은 깊이를 알 수 없 는 절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그 때에, 이 사람은 바다 끝 멀리에는 절벽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세계 가 있고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 고 출항한지 한 달 후에 그는 정말 새 땅을 발견하였다. 1492년 10월 12일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 명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Chris topher Columbus)다. 그가 처음 본 새 땅은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였다. 그는 이 섬 이름을 ‘산 살 바도르’(San Salvador) 곧 ‘구세주’ 라고 지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 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 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확신 때 문이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넘어지 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만큼 불확실하고 연약한 존재가 없 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넘어진다.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1%의 소망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인간은 오직 1%의 소망을 100%의 능력으로 바꾸 시는 능동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 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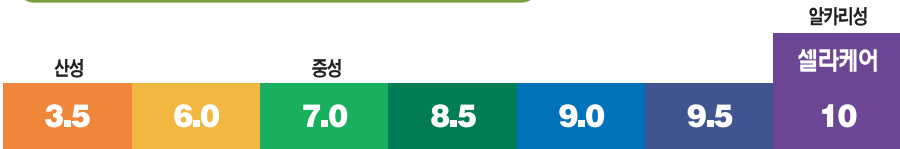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원자력 피해	일본 2세 남자아이 원자력 피해로 말 못하고 걷지 못했으나 M3 셋트 2달 복용후 말하고 걸을 수 있게 됨 토요타 빅토리아 8180-1339-2069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세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셔서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에도 호전됨. 복용 후 190lb가 125lb로되고 시력,피부,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야노증	여섯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야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된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대적인 다리과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심한 알라지.우울증.불면증.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자(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나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체장암 말기	60세 중반에 가장 힘들다는 체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받고 M3세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체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종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팩(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돌돌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종다는 약을 찌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 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홍(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어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을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어나가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31

혹시 오리직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장자는 일직선으로 되어있어서 변을 잡보기 때문에 무슨일이든지 소화를 잘시키 는 사람을 오리직장이라고 합니다. 이 처럼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소화를 잘시키고 배설이 잘되면 좋은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비라고 해서 괴롭다고 합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도 잘 되질 않고, 속이 미식거리고 심한경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그 밖에 장내에 변이 항상 남아 있어서 흔히 말하는 똥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갑상선 기능저하증, 당뇨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하반신 마비 등의 전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변비가 있습니다. 집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만 썩어도 온 집안에 냄새로 건달수 없는데, 몸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 반드시 고려야 겠습니다. 여기서 성경말씀을 잠시 살펴본후에 그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몇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본인과 예수님의관계 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의 답에는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에 잘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성소의 규격과 만드는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제작을 한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출애굽기 26장27장 그리고 38장에 잘 나와있습니다. 성막의 길이는 약 45 미터 넓이가 약23미터인데 그 성막안에 길이 약14미터,넓이 약4.6미터의 성소이 세워지고, 그 성소 길이의 3분에 1을 나눈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일년에 한번 오직 대 제사장 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집송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1절2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권함을 물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9장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 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소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것이죠 11. 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가셨느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6.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7.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내용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없게되므로 본인의 죄는 본인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변비를 예방과 치료에 좋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변비의 예방방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식사방법을 요구하고, 장의 운동방법을 권하는 분들이 많습디만, 예방과 치료방법은 아닙니다. 변비에 걸렸다는 것은 피를 만들어주는 장기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슨병에 걸렸든 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건강상담 문의는 213-435-9600번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필라)	213.386.5310	플러튼 내쳐영양센터	714.690.0120	동부총판	201.983.8333
시온약국	213.382.6485	LA벌몬 마틴약국	213.382.971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시애틀	206.331.6655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벌몬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에나하임	714.469.5809	씨애틀 (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가디나	714.351.0440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알바니약국	847.699.1511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H 마트 내 H 헬스 (앨버인)	949.251.0193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847.877.6346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벨리	818.642.8223	놀릭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LA 다운타운	213.798.3333	벨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플로리다	770.457.1717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부에나파크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NC/SC	770.457.1717
LA 사랑방	213.351.9552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로랜하이츠	626.912.5727	캐나다	604.872.1669
LA내쳐영양센터	213.739.8874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IS, 개종 거부한 어린이 4명 참수

이라크 목회자의 증언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말에 분노



앤드류 화이트 목사. ©오소독스크리스천네트워크

이라크 성공회 캐논 앤드류 화이트(Canon Andrew White) 목사가 “최근 이라크의 크리스천 어린이 4명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참수됐다”며 “그 아이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죽어갔다. IS가 이들에게 마지막 개종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라크의 유일한 성공회 목사인 그는 오소독스크리스천네트워크(Orthodox Christian Network)에서 발행하는 기독교방송네트워크와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역경을 자세히 전하면서 IS의 잔인성을 폭로했다.

화이트 목사에 따르면, 모두 15세 이하였던 아이들에게 당시 IS 대원들은 “무함마드 선지자를 따르겠다”고 말하기를 강요했다. 그러자

아이들 가운데 4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따른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다. 이에 IS 대원들은 “시킨 대로 말하라”고 했고, 이를 거부한 아이들을 참수했다.

화이트 목사는 “이 일에 대해 우리는 그저 울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전했다.

아이들이 참수당하기 며칠 전, 한 성인 남성 크리스천은 “개종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을 모두 참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결국 이 남성은 절망에 빠진 채 개종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화이트 목사는 “그 남성이 내게 전화를 해서 ‘신부님, 제가 개종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며 “나는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분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었다”고 했다.

화이트 목사 역시 IS에 의해 죽음의 위협을 느낀 후, 바그다드에서 이스라엘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소수종교인들을 향한 IS의 잔인함 때문에, 이라크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25만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이라크에서 쫓겨나 쿠르디스탄 북쪽에서 난민생활을 하고 있다.

화이트 목사에 따르면, 아이들과 소수종교인들을 상대로 한 IS의 박해는 강제개종 요구를 넘어선다. 그는 앞서 언급한 4명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참수되거나 몸이 둘로 잘리고 있다고 전했다.

IS에게서 탈출한 야지디족 난민들은 데일리메일과의 인터뷰에서 “IS는 야지디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일 뿐 아니라, 신체 일부를 잘라낼 정도로 잔인하다”고 했다.

13살 된 한 야지디인은 IS가 자신의 마을에서 100여명의 아이들을 죽였다고 주장했다. IS는 소녀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팔아넘기고 있기도 하다. 최근 IS 지도자가 밝힌, ‘기독교인과 야지디인 소녀’들의 성매매 가격은 172달러였으며, 그 나이도 1살부터 9살까지로 매우 어렸다.

강혜진 기자

핀란드 교계 지도자의

“동성애 지지”에 분열 조짐

교인들 이탈 이어져

최근 핀란드의 복음주의루터교회 대주교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발언함에 따라, 교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핀란드 의회는 얼마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카리 마키넨(Kari Mäkinen) 대주교는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부 교인들은 교회 탈퇴를 선언하고 ‘교회를 떠나라(Leave the Church)’는 사이트에 등록했다. 사이트 등록자 수는 11월 마지막 주말 동안에만 대략 12,000명이었다. 루터교는 핀란드의 국교로서, 전 국민의 75% 이상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교회와 관련된 특별세를 내고 있다. 따라서 교회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역 행정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탈퇴한 교인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대주교의 동성애 지지 발언도 있지만, 교인들이 교회를 쉽게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가지론자들이 제작한 ‘교회를 떠나라’는 웹사이트도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불가지론협회 페트리 카리스마(Petri Karisma) 회장은 “카리 마키넨 대주교의 긍정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는 자유주의자들까지 교회를 떠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세포 하키넨 목사와 비욘 빅스트롬 목사는 공동성명에서 “동성결혼 이슈에 동의하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가 하나로 남아 있길 원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누구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데에 온전히 동의했다”고 했다.

빅스트롬 목사는 “사람들이 의회의 결정에 대해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면서 “이들은 주정부나 의회를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가 교회와 대주교의 발언에 분노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한편 마키넨 대주교의 동성애 지지에 따라, 핀란드 복음주의루터교회가 러시아정교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공동성명 발표도 취소됐다.

강혜진 기자

英 성공회 성탄절에

첫 여성주교 탄생할 듯

초대위원회서 여성주교 서품안 최종 승인

영국성공회가 여성주교 서품을 허용하는 교회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새로운 여성주교들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성공회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웨스트민스터에서 최고의결기구인 초대위원회(General Synod)를 열고 개정된 교회법을 승인했다.

승인된 개정안 내용은 지난 7월 영국성공회 총회에서 여성주교를 허용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걸림돌이 됐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영국성공회는 480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주교를 세우게 됐으며, 그 첫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세인트 에드먼스버리와 서팩, 사우스 웰, 글로스터 등이다.

성공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교회가 여성 사제로 끌어올 수 있는 자원들이 ‘깊고 풍부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스루베리 사제인 마크 릴랜드(Mark Rylands)는 스톱사이어 스

타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변화는 ‘좋은 소식’이며, 교회는 지도자 인력을 더욱 충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영국교회는 여성 리더들에게서 큰 유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에도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성공회 내의 또 다른 단체인 ‘리폼’(Reform)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그룹의 대변인 라드 토마스(Rod Thomas)는 성명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만 각자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끌고 가르치는 책임은 오로지 남성들에게만 주어져 있으며, 전체 교인들의 최소 1/4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직 남성들만이 교인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절대로 여성들의 가치를 폄하한다거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남성들은 위대한 진리의 삶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카메룬, 보코하람 테러 우려로

학교 130여개 폐쇄

교회 장로 2명 참수당하기도

카메룬의 130여 개 학교가 보코하람의 테러 우려로 문을 닫았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뉴스가 지난달 26일 전했다.

보코하람은 최근 나이지리아 전체 학교와 대학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테러와 납치를 자행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와 카메룬의 국경 인근에 위치한 학교들은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을 닫았다.

‘세컨더리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Ministry of Secondary Education)의 모누나 풋소(Monouna Fotso) 대표는 “만약 이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점령되는 학교가 또 생긴다면, 앞으로 이 조치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미 일부 학교들은 점령을 당했다”고 했다.

카메룬 정부가 보코하람의 영향 때문에 학교의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두 달 전 보코하람이 카메룬의 아시가시아 시(市)에 침입했을 때에도 학교들이 문을 닫은 적이 있다. 그 때는 약 30%의 학교가 강제로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보코하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수천 명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이 카메룬 북부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카메룬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코하람이 며칠간 아시가시아를 점령하는 동안, 교회 장로 두 명이 참수되는 일도 있었다.

강혜진 기자

앞서가는 **젊은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오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앞서가는 것쟁이들이 있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타코마 교회연합회 회장 이동기 목사

타코마 목사회 회장 최성은 목사 선출

아름다운 전통 계승 발전해 타코마 지역 영적 부흥 힘쓸 것



2015년 타코마 목사회 회장 최성은 목사(좌)와 타코마 교회연합회 회장 이동기 목사(우)

타코마 기독교교회연합회와 타코마 목사회는 2015년도 임원단을 선출하고 언론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2015년도 타코마 지역 교계를 이끌 타코마 기독교교회연합회와 목사회 회장으로는 이동기 목사(타코마 사랑의교회)와 최성은 목사(타코마 제일침례교회)가 각각 선출됐다.

또한 타코마 교회연합회는 부회장으로 최성은 목사, 김순철 장로(새생명교회) 총무 및 서기에 최상구 목사(타코마 미스바교회), 부서기에 이무근 장로(타코마 중앙장로교회), 회계에 박성재 목사(타코마 참빛장로교회), 부회계에 유성렬 안수집사(타코마 제일침례교회)가 선출됐다. 타코마 목사회는 부회장으로 최상구 목사, 총무에 박성재 목사, 회계에 윤법균 목사(타코마 믿음의교회)를

각각 선출했다.

새롭게 선출된 타코마 교계 리더십은 “그동안 타코마 교회연합회가 세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해 나아갈 것이며 타코마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 힘쓰겠다”며 “타코마 지역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민족과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탁월한 리더로 세우는 교회로 나아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타코마 교회연합회는 오는 12월 14일(주일) 오후 6시, 성탄연합찬양예배를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 열 예정이다. 문의는 총무 최상구 목사(253-439-8873)로 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시애틀 명성교회 힘찬 도약 알려

김범기 목사 제 3대 담임 목사 취임

하나님의 꿈,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것



김범기 목사의 위임을 공포하는 놀스웨스트 코스트 노회 노회장 켈트 햄키 목사.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범기 목사.

시애틀 명성교회는 지난 30일, 김범기 목사의 제 3대 담임 목사 위임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힘찬 도약을 알렸다.

김범기 목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가 새로워지고 1세와 2세가 연합해서 부흥해가는 축복의 현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회에 힘이 되어 주고, 헌신해준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목사는 “명성교회는 교회 비전에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 희망이기에 교회가 교회를 낳고 새해에는 교회 개척에도 힘쓰려고 한다”며 “또한 10가지 언어를 쓰는 다민족들이 하나의 언어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2세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임예배는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권준 목사의 사회로 정찬길 목사(시애틀 형제교회)의 기도도 이어 권준 목사가 설교했다.

권준 목사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하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며 “서로의 허물을 덮는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권 목사는 또 “명성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임 예식은 놀스웨스트 코스트 노회 노회장 켈트 햄키 목사의 집례로 헌법 질문에 이어 안수 위임 기도 및 안수 위임 공포가 이어졌다.

켈트 햄키 목사는 “김범기 목사는 노회가 인준하는 모든 교육 과정을 훌륭히 마쳤고, 신앙의 신실함을 보여줬다”며 “노

회를 대표해서 김범기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위임 목사 공포 후에는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이었던 스캇 웨이퍼 목사의 목회자 권면에 이어 김진석 목사가 교우 권면을 전했다. 이어 노회 총무 코리 솔라저 홀 박사, 차기 노회장 캐트린 한센 장로, 김형 장로가 축사를 전했다.

명성교회는 지난 해 8월 김범기 목사 부임 후, 1년 3개월만에 부임 전보다 성도들이 4배 증가했으며, 특히 차세대 사역에 중점을 뒀 주일학교와 유스 그룹의 활성화를 이뤘다.

한편, 1995년 7월 장년 42명, 어린이 13명이 모여 시작한 시애틀 명성교회는 1995년 8월 김원일 목사를 초대 담임목사로 하고 2001년 2월 자체 성전을 마련했으며, 2004년 12월에는 미국장로교단 놀스 퓨젯사운드 노회에 가입했다. 2009년 10월에는 김양해 목사를 제2대 목사로 위임했으며, 2013년 6월에는 행정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김범기 목사를 임시 목사로 임명한 데 이어 2013년 8월 1일 김범기 목사가 임시 목사로 부임했었다. 그리고 2014년 11월 김범기 목사가 명성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로 위임 받았다.

13년 동안 시애틀 형제교회 사역의 전반을 두루 섭겨온 김범기 목사는 특히 청년 사역과 가정 사역에 힘써 왔으며, 공동체 사역, 교회 관리, 교통, 친교, 선교 담당 등 형제교회 핵심 사역들을 담당해 왔다.

김 목사는 목회 초반, 23명으로 시작한 시애틀 형제교회 청년예배를 3부까지 확장시켰고, 청년 300명과 함께 현재 워싱턴대학교 청년예배인 아펠소스의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 또 아버지학교, 행복한 부부학교 담당 교역자로 수년 동안 섬긴 전문 가정 사역자이기도 하다.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2: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413-1600 / laopend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에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오전 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사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45

대학부 오후 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후 11:45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737-3538 / www.laredeemer.com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399-7949 / www.smkc.us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9th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김은발, 미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애제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생 (정부 배넛 전판)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오후 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에 오후 7:30
금요 구역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현연섭 담임목사

구인성장로교회
실천하는 전도하는/원신하는 신앙 공동체
4545 W.Washington Blvd. LA, CA 90016
T(323)428-7878 F(323)932-0788 / kuinhol@hanmail.net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금요기도회 오후 7: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281-1196 E. 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에 오후 7: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현호 담임목사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에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일에 오후 7:30

박성도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면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으로 화-되라, 소망중에 기뻐하라
35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T.(213) 435-0380, (213) 435-0094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바질종교회 / 토요새벽 - 171와 버몬트 코너-100 New Hampshire
주중새벽-LASFC대안교회(671와 리파워트 코너-520 S. La Fayette Park)

EM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금요일에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목양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평영을 순종하는 교회
버질종교회 (171와 버몬트 코너-152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213)386-2233 / www.LAsarang.com

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백재준 담임목사

주일예배(주일) 오전 11:30 새벽기도(토) 오전 06:00
교회학교(주일) 오전 11:30 토요모임(토) 오전 06:00
문화교실(주일) 오후 01:30 성경연구(수) 오후 07:30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T. (626) 710-0798 / todad7@hotmail.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965-3443 / F. (626)965-0404 / sunhanchurch.com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 이 지역

안병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가나 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986-9797 / ganachurch.hompage.com

정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가디나선교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9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K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호남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섬홀)
오후 12: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후 6:30 (토)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성경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 혁 담임목사

주 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뉴욕 목사회 정기총회

회장 이만호-부회장 김영환 목사



뉴욕목사회 제43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43회 정기총회가 24일 오전 10시 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에서 개최, 신임회장에 이만호 목사, 신임부회장에 김영환 목사가 당선됐다.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된 이만호 목사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뉴욕지역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특히 회원 간의 화합에 힘쓰고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이 있다면 힘이 되기를 원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부회장 선거는 1차 선거에서 김영환 목사의 당선으로 결정이 났다. 투표 결과 기호 2번 김영환 목사는 77표, 기호 1번 김상태 목사는 39표를 얻었다. 목사회 부회장 네 번째 출마였던 김영환 목사는 “회장을 도와 회원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진 감사 투표에서는 김상태 목사, 김진화 목사, 임재홍 목사 등 3명이 선출, 43회기 감사로 섬기게 된다.

이날 회계보고에 따르면 뉴욕목사회 제42회기 총수입은 45,794불, 총지출은 42,780불로 잔액은 3,014불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해맞이 금식기도 성회 △미동부 4개주 한인목사회 연합체육대회 △설교클리닉 세미나 △이단사이비 대

책세미나 △시가 있는 목회 자작시 발표회 △정성규 교수 초청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또 이날 신임회원에 마바울 목사(퀸즈 성령강림교회), 박미래 목사(올네이션스 처치), 박옥자 목사(은혜선교회), 이진아 목사(순복음안디옥교회) 등 4명이 가입을 완료하고 회원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무에 앞서 열린 1부 예배는 이만호 목사의 인도, 김홍석 목사 기도, 김신영 목사 성경봉독, 최창섭 목사 설교, 허결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최창섭 목사는 “작은 이들의 빛인 목사”(마 25:4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가 올바른 신앙과 기도,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대원 기자



신임회장 이만호 목사(우)와 신임부회장 김영환 목사(좌)

RCA 한인교협, 올해 마지막 월례회 가져

신성능 목사 “다른 사람 가슴에 남아지는 삶 살자” 강조



RCA 한인교협이 25일 신광교회에서 올해 마지막 월례회를 진행했다.

RCA 대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봉 목사)가 25일 오전 11시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올해 마지막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예배는 이재봉 목사의 사회로 김기호 목사 기도, 나영애 목사 성경봉독, 신성능 목사 설교, 류승례 목사 광고, 김혜택 목사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성능 목사는 신명기 13장1-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목회자들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읽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세상의 누릴 것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남아질 것인가 목회자의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성능 목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는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라면서 “시험의 과정은 힘들지만 이 시험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분 앞에 갈 때 오로지 그 분을 위해 삶을 살았다는 칭찬을 받는 목회자들이 되자”고 전했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RCA 한인교협이 매년 추진해 온 ‘다민족 2세 장학금’ 기금마련을 위해 회원교회들에 동참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12일은 신년 하례식, 1월18일은 재직수련회가 진행됨을 알렸다.

또 이에 앞서 오는 12월28일은 선한목자교회에서 환영진 목사의 선교 파송예배가 열린다. 환영진 목사는 오랜 기간 동안 RCA 한인교협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으며, 28일 파송예배를 통해 선교사로 제2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선한목자교회 담임은 현재 동사목사로 있는 박준열 목사가 맡는다.

김대원 기자



설교하는 신성능 목사

HQ 山 蔘

100% 미국 야생 산삼

미국 산삼 공인딜러
Permit Number 90-293202
200명의 미국, 인디언 심마니 협력 업체

가을 햇빛산삼이
나왔어요

호 뿌리 호 뿌리
정성스럽게 컸습니다!



예쁜 선물 상자도 있습니다.

미국 야생 산삼

1 파운드 = \$800~\$1,300

+ 특별 선물 무료 증정

HQ구연산과 HQ천연미네랄 회색소금(\$200-\$300상당)



산삼의 2차 가격파괴,
산삼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정착시킨 정직한 업체입니다.
산삼의 품질은 최고로 가격은 최저로 해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력한 면역력 · 자연치유력

타 업소보다 2-3배 싼 가격

NY, WI, VA, NC주 최상급 북부 최상급 효능 햇산삼이 매주 두번씩 들어옵니다.
주정부 발행 진품 인증서 첨부된 100% 살아있는 야생 산삼입니다.
채취시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들여와 한 달 내에 전량 판매됩니다.
인삼, 홍삼이 안맞는 분들도 미국 산삼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산삼복용법은 씹어서나 달여서 드시도록 상세 소책자를 드립니다.

산삼의 25가지 효능

임상실험 30년 노하우를 전수받아 건강상태에 따라 각각 상담해 드립니다

1.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
2. 당뇨에 효과가 탁월함을 임상실험으로 입증되었음
3. 심장을 강하게 하며 심매계의 악리작용을 강화한다
4. 위장병 원인이 되는 위산과 펩신의 분비물을 억제함
5. 미국 산삼은 고혈압, 저혈압의 증세를 정상화 시킴
6. 알레르기성 체질을 개선시킨다(비염치료 포함)
7. 정력을 증강시키며 남녀 불임환자에게 효과가 좋다
8. 각종 간질환(간염, 간경변, 간암 등)회복에 탁월함
9.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10. 두뇌 신경세포를 촉진시켜서 머리가 총명해진다
11.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며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능
12. 망막혈관을 세동맥을 선명하게 해 눈을 맑게 한다
13.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없애준다
14. 루머티즘, 만성관절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
15. 만성피로나 하체무력감에 매우 뛰어난 약성효과
16. 체내 독기 제거로 피부를 깨끗하며 종기를 식혀줌
17. 노화물질의 축적을 억제해 노화방지효능이 크다
18. 생명력, 저항력이 증가해 알콜중독과 숙취에 탁월
19. 부인병(냉증, 월경과다, 자궁출혈)에 탁월한 효능
20. 폐기능 등 호흡기 질환의 예방및 치료에 탁월함
21. 신경과민, 신경쇠약과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
22. 모든 질병의 빠른 회복과 원기를 보하고 돌아준다
23. 추위를 타지 않으며 손과 발이 따뜻해진다
24.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함
25. 성인병 예방은 물론 갱년기 장애 해소에 탁월함

건강상담및 문의: Dr.최



전속모델 탤런트 박영지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가톨릭-개신교 “하나님나라” 위해선 공통분모 찾아야

이장식 박사, “문서 중심의 신교, 전통 중심의 구교… 상호보완 돼야”



해암신학연구소 제2회 공개강연회가 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1일 오후 4시 한국 해암신학연구소(소장 이장식 박사) 제2회 공개강연회가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 교황 방한의 의미’를 주제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층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와 바람직한 관계’를 주제로 발제한 김명혁목사는 천주교의 특징으로 ‘수도원제도와 수도원주의’, ‘스콜라신학’ 등을 들며 중세의 대표적인 수도원주의자 성 프랜시스의 삶의 특징을 설명했다.

김목사는 “제가 프랜시스를 존경해서 자주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왜 프랜시스 이야기를 합니까?’라고 할 정도이다”며 “한경직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된 것도 프랜시스 때문이 아닐까? 손양원 목사님, 강원용 목사님, 이동휘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등에게도 깊은 감동과 감화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한경직 목사님이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 33장도 프랜시스의 찬송가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프랜시스는 가난을 아주 중요시한다. 그 다음 순교를 중요시하고 복종을 중요시한다. 또 프랜시스의 삶의 특징은 버림, 청빈, 약함의 삶이다. 마지막에는 학문도 버린다. 그걸 보면 ‘학문, 학문 하는 것도 문제구나’ 하는 생각도 한다”며 “가난을 애처로, 고난을 선행으로 삼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모두를 사랑한다. 사람 중에서도 모슬렘들에게 가고 그 다음 이단에게 갔다. 또 모든 만물을 다 사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랜시스 삶은 저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

서 예수님 닮은 가난과 죽음, 고난을 사모하며 누군가 위해서 제물되는 삶을 살 수 없을까 늘 생각한다”며 “중세 수도원 제도의 금욕주의는 현대의 자유분방한 세속주의적인 유행과 값싼 은혜에 치우치고 있는 개신교회가 본받아야 하고 지녀야 할 덕목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함세웅 신부는 가톨릭의 ‘수도원제도’에 대해 “가톨릭 신학자들은 수도회에 대해서 비판한다”며 “프란체스코 성인이 돌아가실 때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하고 크게 회의를 가지셨다”고 말했다.

그는 “프란체스코 성인은 원래는 평신도였다. 사제가 되면 교만해질까봐 사제 서품은 받지 않고 설교를 하기 위해 부제 서품을 받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제가 안됐다”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수도원이 깨졌다. 그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수도원을 없애버려야 되나 고민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제도가 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신교의 다양한 분파 현상이 수도원의 여러 분파로 나타난다. 수도원주의에도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명혁목사는 ‘스콜라신학’을 설명하며 “중세 가톨릭 신학의 가장 유능한 대변자요 13세기에 스콜라 신학을 가장 크게 발전시킨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이다”며 그의 신학적 과업을 설명했다.

김목사는 “그의 신학적 과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신학을 종합하는 것이었다. 철학을 상당히

내세운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가톨릭이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믿음만 강조하는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양면성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는 철학, 자연계, 이성을 강조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자연과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도적인 교회와 성례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스콜라신학을 신학적으로 비판할 수도 있으나 지나치게 ‘믿음만’, ‘은혜만’을 강조하며 개교회주의와 분열과 분파로 치우치고 있는 개신교회가 긍정적으로 참고하여야 할 요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발제한 함세웅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해 “사람은 보통 머리로 생각하고 종합하며 입으로 말한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과 심장, 마음으로 말해야 함을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계를 언급하며 “1976년부터 아르헨티나 예수회 관구장 신부님으로 봉직하셨는데, 그때 많은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이 고문당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특히 그분들과 함께 했던 예수회 사제 두 분이 군부 독재자에게 끌려갔다”며 “그런데 그때 교황은 침묵하고 때로는 동조했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물론 몇 해 뒤 아르헨티나 주교단에서 공식 사죄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입 관권, 부정선거로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고 민주, 통일 인사들과 평화와 화해를 선포하는 사제들을 향해 끊임없이 중북 논란을 일으키며 매도하는 반민주, 반평화 수구 집단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한국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교황 특유의 사목적 언급이 간접적으로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상상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외 그는 고(故) 안병무목사, 고문익목사 등 개신교 지도자들과 교류했던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개신교와 가톨릭이 어떻게 하나님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김명혁목사는 “성모 마리아, 교황무오설은 조금 뒤로 하고 공통분모를 찾아야겠다. ‘회개하라’는 공통분모가 어떨까나 싶다. ‘칭의론’을 말하고 아무리 세례를 받고 뿔해도 어거스틴도 성 프랜시스도 마지막에 더 처절한 회개를 했다. 어거스틴은 열흘 동안, 프랜시스는 2년 동안 회개만 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지만 하나 더 해야 할 것은 사랑이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아! 나는 망할 죄인이다’ 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본받고 예수님 믿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함세웅 신부는 개신교에서는 ‘칭의론’이라고 불리는 가톨릭의 ‘의화론’에 대해 설명하며 “세례 받으면서 완전히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다. 바르트를 통해서 배운 신학 이론은 루터는 인간의 죄성은 사해될 수 없다고 했다”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의화론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개신교의 해석이나 가톨릭의 해석이나 다 일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암신학연구소 소장 이장식 박사는 “지금 가톨릭을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으로 생각하고 비판할 수는 없다. 또한 근본적으로 신교는 신학, 구약을 중시하는 문서주의적인 특징이 있고 가톨릭은 전통중심적이다. 전통을 무시하고 문서 중심으로만 나가서도 안되고 상호보완해야 한다”며 ‘성모 마리아’에 관한 문제를 꺼냈다.

그는 “성서적인 기록만 가지고 마리아를 숭배하게 된 것을 설명하게 되기는 곤란하다. 마리아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이 없다. 성서를 가지고 마리아 숭배론을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민간신앙이다. 마리아에 관해 부활승천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민간신앙이 전통이 된 것이다. 성서 전집이 생

기기 이전에 어디서 시작됐는지 말하기 힘들 것 같다. 가톨릭에서는 규명했는지 모르지만...”이라고 말하며 또한 “교황의 무오설에 대한 가톨릭의 정의는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 있어서 무오다. 이것 때문에 신부님 말씀한대로 수도원이 수백개가 있고 제도가 달라도 신앙과 제도에 있어서 교황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가니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가톨릭은 자연법을 강조했다. 인간의 타고난 마음 속의 법인 인륜과 도덕이다. ‘아들은 썩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니 우리 구주의 어머니도 하늘에 올라갔을 것이다. 어머니는 썩어지고 아들만 올라갔겠나’하는 생각이다. 자연법을 존중하는 가톨릭교회에 대해서 신교는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가톨릭은 교황이 신앙과 도덕의 교훈에 있어서는 무오하다는 점에 있어서 일치가 이뤄지는 것이다. 수도원 분열이 있어도 그 점에 있어서 일치가 되는 것이다”며 “가톨릭의 교황무오설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신교는 그러한 일치가 없으니 자주 재판소 가서 고소한다. 가톨릭은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 가톨릭은 신교를 떨어뜨리자간 가지, 말라죽은 가지로 보았는데 그 후에는 갈라진 형제로 보았다. 많이 달라졌다”며 “수도원도 동치에 수없이 많은 수도원이 있듯이 신교도 루터, 칼빈에서 많은 가지가 생겨났다. 조그만 겨자씨가 심겨져서 큰 나무가 돼서 여러 새들 와서 집짓고 하듯이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장식 박사는 “차이가 어딴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고 웬만한 것은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 사회를 맡은 김영한 박사(해암신학연구소 학술포럼위원장)는 “교리는 다름을 일으킬 수 있지만 관용은 이해와 화목을 가져다준다. 교리적인 다름을 이단이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가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정리했다.



해암신학연구소 소장 이장식 박사

공 고 음악 저작권 침해는 불법입니다!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 (CCM)저작권 사용에 따른 징수 권리를 가진 퍼블리싱 컴패니 (주)엘로힘 이피에프 USA는 2014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한국 음악 및 교회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진 등록을 공고합니다.

1. 교회에서 찬양을 사용할 시 이제는 저작료를 내셔야 합니다. 안 내면 불법입니다.
2. 교회에서 사용 되는 복음성가곡은 저희 Elohim EPF USA에 내시면 됩니다.
3. 저작료에 대한 것은 웹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Elohim EPF USA는 자진 등록 기간에 등록한 교회에 한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 공고 내용 —

등록 대상: 한국음악 및 교회음악(CCM)을 사용 하는 모든 교회
등록 기간: 2014.12.31
등록 방법: 웹사이트 등록
<https://elohimepfusa.com>
Tel. (213)736-0073
문의처: 문의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Tel. (213)736-0073 <https://elohimepfusa.com>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Special
Pr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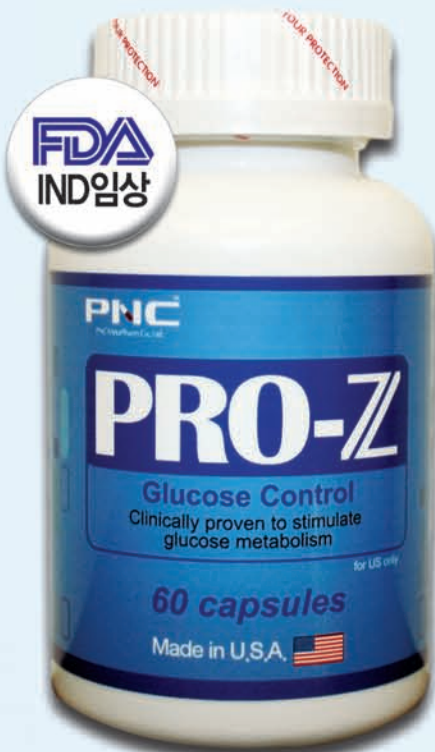


한국 30만병 판매



미국 출시 기념 SALE

1병 \$76 + tax 3병 \$200 + tax 6병 \$372 + tax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에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아반디아와 액토스는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족, 간독성)과 방광암 등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아반디아는 2010년 말에 판매가 중지되었고, 액토스는 2011년 상반기에 프랑스와 독일 유럽 전역으로 판매금지가 확산 됐습니다. 중앙일보 2014년 5월 15일 경제 3면에서 액토스를 복용한 한인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기존의 당뇨약은 혈당은 낮출 수 있으나 각종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병원 2곳에서는 당뇨치료 보조제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sensitivity)에 깊게 관련된 사실을 주목하여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 프로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칼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 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이며, 현재 마지막 3차 임상시험 진행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g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 엘바인점 : 714-818-2014
5331 University Dr. #C Irvine, CA 92612
- 오렌지카운티점 : 562-405-0332
- LA 실로암 한의원 : 213-427-0036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 LA 비디오 마트 : 213-381-2647
363 S.Western Ave. LA, CA 90020
- Mother's Care Pharmacy : 213-739-3030
6th Zion Market
- Vermont Galleria Pharmacy : 213-388-4100
벌몬 갤러리아몰
- Virgil Pharmacy : 213-384-1200
그랜드스파 건물내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6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걷기 불편했는데 부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졌습니다
- 김OO 장로 (당뇨 10년)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4개월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7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 최OO 목사 (당뇨 30년)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 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4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 이OO 집사 (전립선)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미국 공식 판매처

박명수 교수의 한국교회의 연합운동과 복음주의 (2)

한기총의 등장과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현황

한기총 이영훈 목사의 제20대 대표회장 취임과 한목협의 ‘교단장협의회’ 재발족 움직임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에 변화의 조짐이 싹트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지는 2014년 3월 20일, 한기총에서 주최한 한국교회연합운동 토론회에서 박명수 교수(서울신대)가 발표한 ‘복음주의적 연합운동 방안’ 원고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한기총의 등장과 현재의 상황

사실 196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보수·복음주의 교회를 대변할 수 있는 연합기구는 없었다. ICCCL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한국의 보수·복음주의를 대변할 수는 없었다. 실제로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NCCK의 황금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투쟁을 하면서 민주화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세계교회에도 명성을 날렸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운동은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거리가 멀었다.

1988년은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기억할 만한 해이다. 당시 NCCK는 한국교회가 반공을 참회한다는, 소위 88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그들의 민주화운동이 반공 이데올로기에 걸려 좌절되는 것을 보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통일과 민주화에 대립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의 생각은 달랐다. 한국교회는 반공의 기초에서 민주주의

가 발전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한경직 목사와 감리교·기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NCCK의 입장이 한국교회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만들게 되었다. 1988년 설립된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현실적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연합운동이 되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수·복음주의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연합운동 기관이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한국교회의 성장이다. NCCK가 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원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반면,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힘으로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기독교실업인회가 지원해 주었고, 다음에는 한국의 교단과 교회들이 후원해서 운영되었다. 한기총은 한국의 토착 연합기관인 것이다.

둘째, 선교단체들의 활동이다. 한국교회에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교단체들이 있었고, 이들은 대부분 복음주의 입장에 있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대표성이 필요했다. 한기총은 이들을 산하기관으로 편입시켜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지원했다. 따라서 한기총은 단지 교파연합이 아니라 선교단체의 연합이었던 것이다.

셋째, 국가정체성 확립이다. 한기총이 한국 사회에 강하게 부각된



박명수 교수
서울신대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였다. 이들의 대북정책이 한국교회에는 매우 위협스럽게 보였고, 한기총은 보수단체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이라는 용어가 한기총의 각종 모임에 등장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한기총은 최근 들어서면서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서두에서 말했듯 한기총의 주요 멤버들이 한기총 활동을 보류하고 한교연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기총의 가장 중요한 멤버였던 통합·합동·기성 등이 한기총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은 왜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빼아픈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얼마 전 한교연의 모임에서 ‘과연 따로 갈라서는 것이 최선이었는가’를 묻은 적이 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내부에서 개혁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제 필자는 한

기총 모임에서, 왜 이렇게 한기총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고 적당하게 연합을 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첫째, 대표회장의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도덕성의 결여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이며, 그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각종 잡음이 들려왔고, 이것은 일반 사회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이것은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필자는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담모니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은 성직자라고 하면 우선 물질과 명예에 초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일반인들에게 비친 개신교 성직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WCC 부산총회를 둘러싼 유연성의 부족이다. 한기총이 WCC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한기총은 복음주의의 연합기관이며, 따라서 WCC 신학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역효과를 갖기 쉽다. NCCK에 가입한 교단 내에도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있다. 최종적인 판단자는 한국 교인들이며, 동시에 한국 사회이다.

필자는 WCC 부산총회가 한국교

회의 연합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확대시켰다고 본다. 우선 WCC 총회는 회원과 찬성하는 사람들끼리 진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준비위원회 측에서 WCC 부산총회를 한국 전체 교회의 축제로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50여년 전 WCC 때문에 갈라진 한국교회의 정서를 너무나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 여기에 대한 반발로 한기총은 WCC 총회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런 싸움은 한국교회와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WCC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으나 생각한다. 최근 WEA 세계대회가 무산된 것은 바로 이런 유연성 없는 태도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복음주의는, 신앙은 복음주의이지만 다른 입장을 존중할 줄 아는 자세를 요구한다.

필자는 한동안 한기총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만일 한기총이 당시 논의되고 있던 감리교 가입을 설득하여 성사시킬 수만 있었다면, 한기총은 한국의 대다수 교회를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대표적 연합기관이 된 것은 오랫동안 쌓은 노력의 결과이다. 하지만 한기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을 뿐 아니라 현재는 상당히 후퇴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계속)

칠면조와 양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이번 추수감사절에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에 칠면조가 해피팩스 기빙 인사를 하며 팻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팻말에 이렇게 쓰

여 있었습니다. “이날에 닭을 드세요!”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식탁을 위해 올해에도 약 4천5백만 마리의 칠면조가 도살을 당했다고 하니, 자기들 그만 잡아먹고, 닭 좀 먹으라고 할 만합니다. 저희도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 23파운드짜리 칠면조를 수 시간 오븐에 구워 잘 먹었습니다. 오직 이날을 위해 일 년 내내 양육되었던 칠면조를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쯤에 백악관에서 칠면조 한 마리를 살

려주는(Pardoning a Turkey)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4천5백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구원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감사절만큼이나 유대인에게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날에 모두 모여 양을 잡아먹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이 노예생활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되던 결정적인 날이 장자의 재앙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 날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은 집은 모두 예외없이 장자가 죽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을 잡아 피를 발랐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이후로 이날이 되면 양을 잡아먹으며, 해방의 날, 그리고 구원의 날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 심판 받아야 하는 날에 대신 죽은 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요 1:30).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백악관에서는 4천5백만 마리의 칠면조가 죽고 한 마리가 용서받았다면, 이날은 예

수님이 혼자 죽으시고, 대신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잘 구워진 칠면조 앞에 칼을 들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양 고기’를 먹듯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습니다.

감사절 칠면조가 꼭 성찬식에 올라온 양 같아서 아주 많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복음에 잠기다

제라드 C. 윌슨 | 예수전도단 | 316쪽

〈복음에 눈뜨다〉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크고 깊고 넓고 높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쓴 책. 전작이 믿음으로 출발한 이들의 간증과 삶의 다방면에 적용되는 복음을 말했다면, 이번에는 그 놀라운 복음 자체에 대해 설명한다. ‘복음’은 영접할 때만 필요한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고 그럴수록 우리가 그분으로 빛나게 됨을 역설한다.



회개

토마스 보스턴 | 생명의말씀사 | 328쪽

‘6대 청교도 설교자’로 불리는 저자는, 회개의 심각성을 힘주어 강조한다. 회개는 잠깐 동안 죄를 후회하며 일시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이자 영혼의 계속적 성향과 상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은혜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회개는 마음 속에 있는 은혜로 일평생 책임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다.



교회의 아이들

크리스티안 그레트라인 | CLC | 304쪽

성경적·신학적·역사적·교육적·예전적 이해를 토대로, 어린이 예배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교회학교 교역자, 교사, 어린이 예배사역뿐 아니라 청소년 사역 관련들에게 지침서가 될 수 있다. 부록에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도전들과 백석대 김상구 박사의 ‘어린이 예배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저자는 독일 뮌스터대 실천신학 교수이며, 역자들의 스승이기도 하다.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

황경애 | 코리아닷컴 | 296쪽

세 자녀를 미국 명문대 장학생들로 키워낸 저자의 자녀교육 방법론.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실력과 인품과 리더십을 갖춘 성인으로 키운 노하우를 들려준다. 엄마는 ‘희생의 아이콘’이 아니라 ‘꿈의 아이콘’임을 강조한다. 혼자였고 약자였고 가난했지만,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해 달라는 저자의 기도는 위기 속에 이뤄지고 있었고, 고난 속에서 그 꿈은 스스로 길을 만들며 완성돼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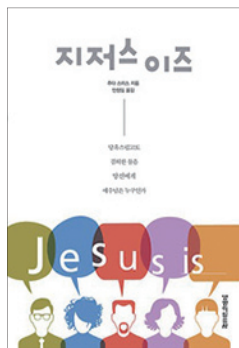
REVIEW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저스 이즈’ 캠페인의 당혹스럽고도 겸허한 물음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미국 시애틀 시티교회에서 시무하는 젊은 목회자 주다 스미스(Judah Smith)에게 기독교는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가 시작한 것이 ‘Jesus is _____’ 캠페인이다.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관심이라는 생각에, 스미스 목사는 3년 전 사람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한 번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주님도 그들에게 자신을 더 깊이 계시하실 거라고 그와 교회 사람들은 믿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홈페이지 조회 수는 150만 건을 넘었고, 7만 5천여명이 자신의 대답을 달았다. 빈칸에 적힌 내용들도 무척 감동적이었다. “하나하나 읽다 보면, 우리 사회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주로 호의적인 글이 많았지만 반기독교적인 내용도 많았다. 심지어 악의적이고 변태적인 것들도 있었다.” 답임목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명한 홍보수단’을 겸해 시작한, 그의 이 캠페인은 곧 ‘교회의 사명’이 됐다. 시티교회 입구에는 현재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지저스 이즈
주다 스미스 | 생명의말씀사 | 280쪽
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우리 인생에서 그보다 더

나는 사명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 주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내 평생의 집념이자 열정이자 기쁨이다.” 스미스 목사는 이 캠페인을 토대로 책 〈지저스 이즈(Jesus Is)〉를 썼다. 책에는 그 ‘예수님은 ~이다’의 서술어를 ‘우리의 친구다’, ‘은혜다’, ‘핵심이다’, ‘행복이다’, ‘여기 계시다’, ‘살아 계시다’ 등으로 나눠, 삭개오와 마태, 탕자의 비유 등 성경의 이야기들을 버무려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성경 애호가’이며, 성경은 ‘삶에서 직접 겪고 부대낀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기록되

어 있다’고 소개한다. 같은 출판사의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유〉가 떠오르는 책. “꼭 이 말을 당부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그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늦은 시간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 물론 이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이야기라는 걸 나도 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다.” 이대웅 기자

회소식

Super Store 푸엔테힐스에서만 드리는 중·소형 교회 목회자를 위한 자동차 특별 리스 '패스터 패키지'(Pastor Package)

크레딧이 없거나 나빠도 OK!
중·소형 목회자를 위한 원가세일!



차종 : 엘란트라, 소나타, 중고차
구입서류 : 목회자 증명서,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보, 소득증명서

P-H 푸엔테힐스 현대 Tel. (213)276-8959(찰리 정)
Puente Hills Hyundai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Dealer Tel. 1-880-850-2077



찰리 정

탁월한 영성 지침서로 큰 영향을 끼친

불멸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성의 삶을 가르친 토마스 아 켄피스는 1379년에서 1380년 사이 존과 겔트루데 해멜칸(해멜칸은 ‘작은 망치’를 뜻한다)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였고, 어머니는 조그만 어린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아직 어린 시절에도 토마스는 교육받기를 갈망했고, 독서와 명상의 조용한 생활을 원했다. 그가 즐겨 말하던 좌우명은 “나는 작은 책과 더불어 좁은 구석에 앉아 있는 것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결코 휴식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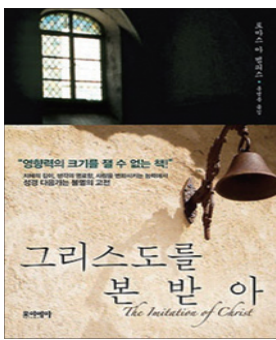
아마도 그가 종교적인 생활이나 수도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느낀 것도, 그처럼 어린 시절이었는지 모른다. 토마스는 1406년 경에 청빈·순결·순종이라는 수도사 서약을 하였고, 1413년에는 33세의 나이로 사제 직분을 받았다.

1425년에 그는 수도원 부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갓 들어온 수도사들을 훈련시키는 직분도 맡게 되었다. 그는 1471년 6월 25일에 사망했는데, 성 아그네스 수도원의 연대기에는 “이로써 그의 삶은 완성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 때가 성 야고보의 축제일이었으며, 그의 나이 98세, 종교생활 63년째, 수도생활 58년째 되는 해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97년에 그의 무덤 앞에 하나의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이는 전 세계 각지의 모금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그 비문은 이러했다. “토마스 아 켄피스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이름은 어떤 기념비보다도 오래 남으리라.”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edia Britannica)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기독교 문학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작품이다. 존 웨슬리(John Wesley)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천 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일반 원리들은 묵상의 씨앗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기독교 고전 중의 하나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 토마스 아 켄피스(Thomas a Kempis, 1379~80~1471)의 본명은 토마스 해멜칸이다. 이 책의 1부는 영성 생활에 관한 권고, 2부는 내적 생활에 관한 권고, 3부는 내면의 위안에 관하여, 그리고 4부는 복된 성만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초기의 번역본은 3부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 켄피스 | 포이에마 | 404쪽

번역하곤 했다.

책 제목이 보여주듯이, 책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음으로써 완전한 길을 가도록 가르치는 데 있다. 이 책은 탐구적이고 영적이며,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이다.

1425년부터 1450년대에 이르는 동안 비밀리에 퍼져나가던 이 책은, 이후 수십년 내에 서유럽 전역에서 사랑을 받는 책이 되었다.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최고의 목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 거룩한 십자가의 왕도를 따라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를 연구한 크루이스 박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가져온 빛을 가장 완벽하게 반사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교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토마스 아 켄피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이외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사랑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피조물에 망할 때 함께 망할 것이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 영원히 굳게 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분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아〉에는 경건한 두려움뿐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정신이 숨쉬고 있다. 만일 토마스가 죄악에 대한 회개와 우리가 거역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면, 그는 그러한 회개와 경외심이 지니는 궁극적인 목표

가 곧 기독교인의 신앙과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추어 볼 때 그가 비록 교리에 근거하여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올바른 입장에서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죄악을 벗어나 은총 속에서 자랄 수 없다고 하는 무능의 고백이 그 하나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자신감이 다른 하나이다.

토마스에 따르면, 평안할 때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음을 통하여, 곧 그의 고난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 감으로써,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을 세상적인 삶으로부터 내적인 삶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며, 하나님에게만 소망과 신뢰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거나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위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면, 독자는 이 책이 얼마나 귀중한 고전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전한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심화시켜 주는 일련의 명상들이라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현주목사는 이 책의 영향력에 대해 “지난 5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책이 끼친 방대한 영향력을 측량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지혜의 깊이와 생각의 명료함,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어 아마 성경 다음 가는 책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한 수도자가 쓴 작은 책 한 권이 많은 독자의 인생을 바꾸게 하고, 끊임없이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아 켄피스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깊은 겸손,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인간성에 대한 통찰력과 너그러운 이해심으로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슬기롭고 신뢰할 만한 조언자가 되고 있다. 그의 생애와 저작은 후기 중세교회의 영적인 꽃이었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사탄은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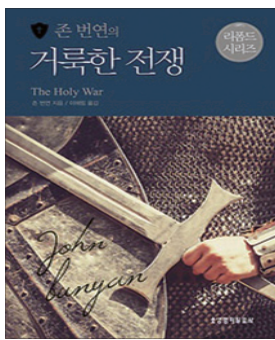
공격하고 유혹하는가

〈천로역정〉의 저자가 영혼에 주목해 서술한 책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는 〈천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또 다른 작품이다. 〈천로역정〉과 비슷하게, 등장인물들이 달고 나오는 직설적인 이름에 유의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천로역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순례길 중 외부 환경에서 오는 영적 체험을 다뤘다면, 〈거룩한 전쟁〉은 영혼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체험들을 토대로 일어나는 외적 결과에 대해 서술한 점이 다르다.

저자 자신의 변민과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우화 형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인간 내면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영적 퇴보와 회개의 과정을 탁월하게 묘사해 낸다. 마귀가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유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구원에 관련된 역사적 서술과 함께, 개인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들을 성경적으로 설명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그가 〈천로역정〉 집필 이전인 1660~1672년 베드퍼드 감옥에 감금돼 있을 때 썼다. 당시 존 번연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이유로



존 번연의 거룩한 전쟁
존 번연 | 생명의말씀사 | 392쪽

고소를 당해 무려 12년간 갇혀 있었고, 그 동안 이 책 외에도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도 썼다.

이 책은 출판사의 ‘리폼드 시리즈’ 10번째 책이다. 시대를 초월한 개혁주의자들의 양서를 원문에 충실하면서 읽기 쉽게 현대적으로 편집하고 있는 이 시리즈는 〈천로역정〉을 필두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순전한 헌신〉, 존 오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등이 나왔다. 이대웅 기자

오늘밤도 지켜주세요

잠들기 전 들려주는 기도책, 어린이를 위한 복음 설명서

“잘 자요! 잘 자요! 온 세상 모든 불빛이 잠드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은 잠들지 않아요. 저기 높은 곳에서 따뜻한 빛으로 우리를 포근히 비춰 주시죠. 잘 자요! 잘 자요!(빅토르 위고)”

아이들이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들려주는 기도책이다. 위에 소개된 빅토르 위고의 시를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서 관련된 시와 좋은 글들을 모았다.

‘낮이 지나갔어요’, ‘이제 잠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도 지켜주세요’, ‘새로운 하루’ 등 4가지의 내용들로 분류돼 필요한 부분만 펴면 된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아이, 아침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는 아이, 불안해 마음이 쓰이는 아이에게 들려주면 좋을 듯하다. 평안



오늘밤도 지켜주세요
엘레나 파스쿠알리
홍성사 | 64쪽

과 신앙을 동시에 심을 수 있다. 아이들이 쥐고 읽을 수 있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표지를 폭신하게 처리했다. 파스텔톤의 귀여운 일러스트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를 만족시킨다. 이대웅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밀착이 경량하지 못한 전신기능의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 T.213.487.0691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빠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기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F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 승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인슐린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상의 6개월복용시혈당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비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계신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1병 \$76
3병 \$200
6병 \$372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가능 개선제
PRO-Z

TONERSUM 칼라레이저 프린터 리스(임대) \$49.99/month 선착순 5명

\$69.99 \$149.99 (SAVE: \$80.00 (53%))

MULTIFUNCTION LASER PRINTER

레이저 프린터(칼라흑백) Blow Out Sale!!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청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청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딜러업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범위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TOGO & 캐더링 원영

머글레 싸갈레

요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월: 북아프리카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튀김밥 해물수제비

화: 닭볶음 요리가이오 맥도날드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한방스테코리미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김치찌개 닭볶음 요리가이오 소고기볶음밥 오일밥

금: 궁채김치 닭볶음 요리가이오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김치구이 돈가스 치킨데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침실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76 오일사용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신고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신고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3달분 \$60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산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각종보험취급 (오바마 케어 포함)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이번달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이벤트 “2015년형 뉴 제네시스 입하”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Genesis 2015 ALL IN STOCK @ \$36,120

ALL NEW 2015 GENESIS SEDAN

Genesis 2014 3.8 ALL IN STOCK @ \$36,120

Lease for \$249 PLUS TAX @ 36 MONTHS

Equus 2014 signature ALL IN STOCK @ \$61,920

Lease for \$399 PLUS TAX @ 36 MONTHS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이름에 걸맞는 연합 이루고 시대의 등불될 것

양병희 목사, 한교연 제4회 총회서 새 대표회장에 추대돼



총회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내: 양병희 목사)

양병희 목사(예장 백석, 영안장 로교회 담임)가 2일 오후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 제4회 총회에서 새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이날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선 양 목사는 투표없이 총대들의 기립박수로 새 대표회장에 추대됐다. 양 신임 대표회장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앞선 대표회장님들의 희생과 눈물,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임기 동안 한교연이 그 이름에 걸맞는 연합을 이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의 역사 속에서 부흥했지만 오늘날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 위기를 또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겠다”며 “한교연이야말로 건강하고 복음적인 연합기관이라 자부한다. 한국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고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양 목사에게 깃발과 의사봉을 넘긴 한영훈 직전 대표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끝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자 여러분분의 애정과 기도 덕분”이라며 “부족한 중을 사랑해 주셔서 한교연 3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임원진에는 서기 이태윤 목사(예장대신), 부서기 이영주 목사(예장백석), 회계 이창연 장로(예장통합), 부회계 정진교 장로(기성), 감사 김광한(예장통합)·김경호(기성)·김동성(예장대신) 장로를 각각 임명했다. 이외 임원 및 상임·특별위원장 임명은 직전·신임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경과 및 결산보고와 더불어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한 후, 그대로 받았다.

한교연 사업에 적극 협력한 공로로 장종현(예장백석 총회장)·전광

훈(예장대신 총회장)·김정훈(한기부 직전대표회장)·전태식(스포츠위원장)·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 장은화 장로(문화예술위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 세계적인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가 해외 연합기관을 대표해 인사하는 시간도 있었다.

제4회 총회선언문도 채택했는데, 한교연은 이 선언문에서 “빠를 짊어지고 각오와 결단으로 스스로를 갱신하고 개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몸을 바로 세워 나가는 교회 일치, 갱신운동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면서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민족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 성장과 성숙을 책무로 삼으며 이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교연은 오는 12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양병희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 촉구 시위 재차 열려

‘동성애반대운동연대’ 빗속 강행



‘서울시민 인권헌장’ 폐기 촉구시위

‘동성애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춘길 목사, 상임위원장 변병탁 목사, 사무총장 고정양 목사)가 지난달 26일에 이어 28일 저녁에도 서울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를 촉구하며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약 5백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비가 오는 중에도 비옷을 입은 채 ‘동성애 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인권헌장 제정 저지를 호소했다. 특히 시위 도중 시청 건물 측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서 인권헌장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나오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시위에 앞장선 송춘길 목사는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인권헌장이 반드시 폐기되기를 바란다. 이 간절함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목사는 “인권헌장의 내용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지

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것”이라며 “특히 성적지향의 경우 동성애 뿐만 아니라 소아성에 등도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행위자에게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제정하려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한편 ‘동성애반대운동연대’을 비롯해 ‘에스터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6일 같은 장소에서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 촉구 기자회견·국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만들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그 결과물로 나온 헌장 초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인권헌장’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애기봉 원상복원 위해 청와대 앞 시위

김국도 목사, 해병대 군복 입은 채 피켓 들고 항의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 원로)가 예고한 대로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김포시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해병대 출신인 김 목사는 이날 해병대 군복을 입은 채 ‘애기봉 철탑 22m로 원상복원하라’ ‘민주국가의 표상 종교 자유의 상징 무적 해병의 기상 애기봉 철탑을 복원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김 목사는 이날 청와대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탄원서에서 김 목사는 “애기봉 십자탑은 1971년 건립돼 북녘땅에 성탄트리의 환한 불빛을 비추었다”며 “그 후 1987년경 대형 십자탑으로 개축하고, 각 교파와 교회들이 성탄절 전에 불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준 십자탑이 최근 철거됐다. 그러나 오

래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독교계의 협조를 얻어 충분히 재건할 수 있었다”면서 “왜 43년 동안 지켜온 자유의 등대를 철거해야 했는가. 이는 일관성 없는 대북·통일 정책의 혼선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드린다.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희망을 다시 찾아 달라. 현 정부와 국방부가 반기독교적이 아니고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 달라”며 “금년 성탄절에도 분단의 현장에서 성탄절 기념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구를 허가해 달라”고 탄원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도 애기봉 등탑 재건을 위한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실버봉사대, 김장김치 만들어 저소득가정에 전달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강남구 일원동 영구임대아파트 550여 저

소득 가정 및 독거노인을 위해 김장 대축제 행사를 개최했다.

중부발전, 서울도시철도공사, 마사회 선릉지사, 율현세무법인, 일원1동 주민자치위원회, 동우리가족봉사단, 푸드머스, 우리은행 본점 리스트관리팀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10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대축제제를 벌

였다.

밀알복지재단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최미경 관장은 “지역주민들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노령화되어가, 재가복지서비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에게 결연·물품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기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후 9:12)

전국민의료보험시대,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료상조회는,

- IRS Section 501 (c) (3)에 의거한 비영리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 소속이며
- 오바마케어 벌금 면제 기관인 Health Care Sharing Ministry로서,
-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의료비 나눔 사역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북부지역: 엘에이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벤추라 카운티 산타바버라 카운티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 세미나 접수받습니다!

의료 보험료가 부담스런 한인들을 위해
“오바마케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

남가주 북부지부
지부장: 김경호 목사

☎ 213.249.1161
shelby.moon65@gmail.com
621 S Virgil Ave ,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일보 LA

☎ 949.864.9162
cmm6791027@gmail.com

※ CMMI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의료비 분담 사역)입니다.

(본부)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 무료전화 888-777-8226 | www.cmmlogos.org | info@cmmlogos.org

P-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미국에서 에쿠스를 가장 많이 파는 딜러!
소비자 만족도 서부지역 1위!
미국에서 가장 큰 단일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Thanksgiving Special

쏘나타를 만나는 특별한 기회! 지금 푸엔테 힐스 현대에서 확인하세요!
2014, 2015 전 모델 차량 인수 하시고 첫 페이먼트는 90일 후부터 내세요!

최신형 2015
SONATA SE

\$118

+TAX * \$0 DOWN
36mon.

MSRP: \$22,085,
\$0 DUE AT LEASE SIGNING, LEASE CASH \$500,
HOLIDAY BONUS CASH \$500,
LA AUTO SHOW BONUS \$500,
VALUED OWNER COUPON \$1000, BOOST UP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28402F45



최신형 2015
ELANTRA SE

\$58 **+TAX**
36 Mon.

MSRP: \$19,410.
\$2,995 DUE AT LEASE SIGNING,
VALUED OWNER COUPON \$500,
LEASE CASH \$500,
HOLIDAY BONUS CASH \$500,
BOOST UP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45432F45

최신형 2015 **EQUUS SIGNATURE 'DEMO'**

\$485 **+TAX**
36 Mon.

4대 한정

MSRP: \$62,450, \$4,990 DUE AT LEASE SIGNING, RESIDUAL VALUE \$32,474,
LEASE CASH \$2,000, VALUED OWNER COUPON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MODEL #E0422R85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저스틴 길
626.513.4580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